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 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Ⅱ

(요 1:4~5)

이종윤 원로목사

### 2.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1) 빛은 혼돈을 물러가게 하나 어둠은 혼돈을 불러 온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 1:3)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 1:5)

① 빛은 질서이다.

빛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생깁니다. 빛이 비취지면 혼돈에 질서를 가져옵니다. 언제든지 빛 앞에서 사는 사람은 질서를 가지고 삽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리된 사람은 삶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은 사람은 삶의 모든 부분에 질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가정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가정과 국가는 그 분위기와 문화에서 기독교의 향기가 납니다.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위와 아래의 질서가 생기고, 형제간에 질서가 생기고, 삶에 질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비취지면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생깁니다.

② 어둠은 혼돈이다.

빛이 비취지면 질서가 생기나 반면에 어둠이 오면 혼돈이 옵니다. 어두운데 가면 아무도 안 본다는 생각에 사람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누가 볼까 봐 문화’입니다. 이것을 체면문화라고 합니다. 동양 사람들의 유교문화는 체면문화입니다. ‘야! 누가 볼까 무섭다’ 누가 안 보면서도 관찮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없는 세계, 그것은 어둠의 세계이고, 이 어둠의 세계는 심판이 있습니다.(창 19:28 ; 계 16:10), 빛이 없는 어둠은 무저갱이요, 그 곳은 마귀가 노는 곳입니다. 마귀는 어둠의 자식들이므로 어둠을 좋아합니다. 빛이 없는 곳은 더럽습니다(사 14:11). 양심이 더럽고 생활이 더럽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더럽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이 사라진 곳이요, 빛이 없는 곳은 어둠입니다.

어둠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마 22:13)

첫째, 어둠은 부자유한 것이다.

“그 손발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마 22:13). 어둠은 자유가 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것입니다.

둘째, 어둠은 슬픈 것이다.

“슬피 울며”(마 22:13). 예수님 없는 사람은, 기쁜 것 같아도 우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는 민족이었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새가 운다고 하지 않고 새가 노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가 운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슬프니까 새소리가 우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좋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을 봐도 좋고 건물을 봐도 좋고 자연을 봐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저 모든 것이 싫고 모든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이것은 어둠 때문입니다. 마음에 어둠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셋째, 어둠은 분한 것이다.

“이를 갈게 되리라”(마 22:13). 지옥에 가면 분해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 떠난 사람은 매일 분해서 못 견뎌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고난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분을 품으면 결국 자기에게 믿음의 손상이 옵니다. 분은 빨리 풀수록 좋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 합니다.

넷째, 어둠은 고통이다.

슬퍼서 울고 분해서 이를 가니 그 고통이 어떠한겠습니까. 어둠의 자식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은 빛이 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어둠은 빛이 오는 것을 미워합니다.

(2) 빛은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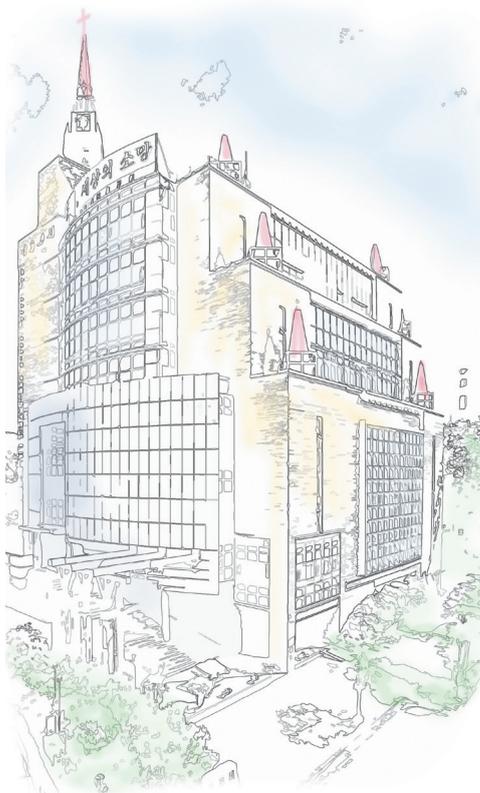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요 12:46)

빛은 혼돈을 물러가게 할 뿐 아니라 인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발 가는 곳에 등불이 필요합니다. 빛이 오면 이 빛이 우리를 인도합니다(요 12:36, 46).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빛 되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발의 등불이라고 한 것입니다.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말씀이 등불로 나를 비취 주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등대는 어둠 밤바다를 밝혀 배들이 안전하게 포구로 들어오도록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좁은 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은 빛으로써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결길로 가지 않고 어두운 구렁이에 빠지지 않고 험한 산길을 오를 때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주 계속)



# 2019 흥해작전 진군 시작!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6월 6일(목)~6월 25일(화) 오전 5시 30분~6시  
특별새벽기도회 : 6월 17일(월)~6월 22일(토) 오전 5시 ~6시  
특별새벽기도회 강사 : 서창원 목사

드디어 2019 흥해작전이 6월 6일(목) 시작으로 17일간의 진군이 시작되었다.

흥해작전은 서울교회의 대표적, 상징적 행사다.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우리 서울교회는 설립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27년간 흥해작전이 시행되어 왔고, 흥해작전을 통하여 숯한 기도 응답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

2019 흥해작전은 시작이 매우 좋다. 지난 6월 4일 화요일에 열렸던 안식년 관련 총회 재재심에서 102회기 재판국의 불법재심판결이 취소되고 안식년규정에 대한 무효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3년여 총회재판국에서 계속된 재재심관련 소송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 이제 남은 대법원 안식년본안판결 승소를 위해 이번 흥해작전을 통하여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최종 응답을 기다려야겠다.

이제 2019 흥해작전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새벽을 가르며 달려 나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받으므로 개인, 가정, 교회, 국가의 흥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소원한다.

## 2019 흥해작전 공동기도문

1. 하나님 아버지! 폭풍처럼 밀려오는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오니,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로 구원하여 주소서
2.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의의 병기로 불의와 대적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게 하옵소서
3. 보혜사 성령이시여,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음을 믿게 하심으로 생사 간에 가장 큰 위로를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4. 피난처이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며 피난처가 되시어 흔들리고 넘어지는 울타리 밑에서 울부짖는 우리 교회, 국가, 가정을 권능의 팔로 안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주소서
5.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님, 몸 되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기초위에 세워지게 하옵시고 성경적 교회로 갱신되게 하옵소서
6. 위로의 성령님, 복음화 된 통일조국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로 거듭난 서울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그 날을 지체하지 마옵시고 이루시되 이 사명 앞장서서 감당할 하나님의 목회를 할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찾아 보내주소서

위로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총회 재판국 재재심, 102회기 재심판결 취소 - 장로무효건에 이어 다시 승소 -

지난 6월 4일(화) 열렸던 총회재판국은 서울교회 안식년규정 관련 재재심 건에 대하여 앞서 박노철 목사 측이 승소하였던 102회기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그들이 청구한 안식년규정 무효 확인청구가 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고 한다.

결국 지난 5월 14일 선고된 장로증원결의 관련 승소판결에 이어 서울교회 안식년규정 건도 승소함으로써 그동안 1년 4개월여에 걸쳐 진행되었던 총회 재재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 이번 재판은 전례가 없는 재재심까지 기적적으로 이끌어

내며 불법으로 선고된 판결 세 건 중 두 건의 결론을 뒤바꾸어 교단 재판국의 공의를 세웠다는데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안식년 분안 상고건이 원심으로 확정되기만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며 조속히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면 된다.

그동안 재재심 재판의 바른 결과를 위해 총회 재판 현장에 참여한 여러 성도님들과 기도로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박동식·유하영 송인수·박한욱 임훈규 최죽희 이선희  
전용순 윤요섭·안재희 임대중·남재은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 6월 정기당회

지난 6월 5일(수) 수요 2부 예배 후 6월 정기당회가 당회장 직무대행 강대성 변호사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당회에서는 지난해 11월 결의한 2019년 서울교회 섬김위원 임명건 추인과 휴무에서 복귀한 오치열 장로에 대한 11교구장 보임결의 및 그동안의 교회분쟁으로 벌써 임기만료 후 2년 가까이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한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신임이사 선임안 등 총 7가지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 2019 성경암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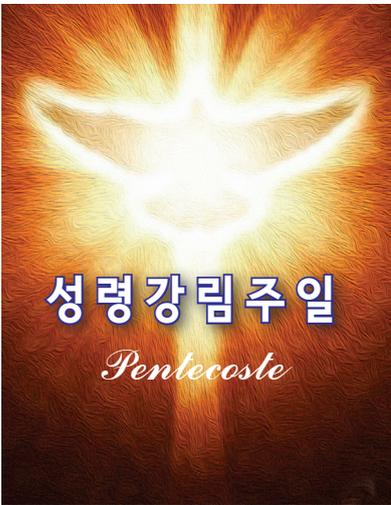
범위: 마 5-7장(산상수훈)  
예선: 9월 29일(주일)  
본선: 10월 12일(토)

2019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일시: 9. 29(주)  
\* 암송범위: 마 5-7장(산상수훈)
2.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일시: 10. 12(토) 오후 1시



B.M.W. 운동



오늘은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첫 곡식을 감사하는 절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곡식을 감사하는 이 절기는 유월절 이후 50번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날은 흔히 '맥추절'(출 23:6)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에 밀과 보리의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또한 '칠칠절'(출 34:22)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초실절에서 7주가 지난 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순절은 첫 곡식을 추수하는 감사의 예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위하여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뻐하며 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영혼과 정신을 새롭게 출발시켜 주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던 감사의 절기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의 첫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던 때(행 2:1-41)를 기념하는 절기로 승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의 회중들에게 유대의 전 역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성취된 것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선포하는 능력 있는 설교를 하였을 때 3천 명의 회심자를 얻는 역사적인 선교의 장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은 교회가 메시아의 완성된 시간의 상징으로 지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편집부)

2019 흥해작전

##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시간



김승륙 집사 (2019 흥해작전 차장)

서울교회 설립 후 27년 동안 진행되어 온 흥해작전이 2019년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한 위로”라는 주제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고전 6:19~20)” 말씀을 가지고 시작된 흥해작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도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흥해작전을 시작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몸된 서울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총회재판국을 통해 중요한 판결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에 모든 서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와 감사드리고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할 때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앞에서 인도해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의 아

픔과 고난 가운데 처한 우리의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받고 주안에서 참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흥해작전이 시작된 첫날(6월 6일) 이른 새벽에 영아부의 어린 생명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많이 나오셔서 웨민홀을 가득 메우고 찬양과 기도와 준비하신 말씀으로 큰 은혜와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께서 이른 새벽부터 귀한 섬김의 손길로 친히 만들어 주신 치아바타샌드위치는 그 어떤 유명 맛집의 간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속히 서울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019 흥해작전은 지난 6월 6일(목)에서 25일(화)까지 17일 동안 계속되며 풍성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준비해 주십니다.

- (1) 2019년 6월 6일(목) ~ 6월 8일(토)  
새벽 5시 30분 ~ 6시  
- 강사 : 서명철 목사
- (2) 2019년 6월 10일(월) ~ 6월 15일(토)  
새벽 5시 30분 ~ 6시  
- 강사 : 장석남 목사
- (3) 2019년 6월 17일(월) ~ 6월 22일(토)  
새벽 5시 ~ 6시  
- 강사 : 서창원 목사
- (4) 2019년 6월 24일(월)~6월 25일(화)  
새벽 5시 30분 ~ 6시  
- 강사 : 조원영 목사

이제 시작된 흥해작전에 모든 서울교회 성도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고 나아와 참여함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의 많은 흥해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여 흥해가 대로가 되는 영원한 위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신앙의 기본 질서를 위해



**최광성 장로**  
(예배위원장)

좁은 공간에서 예배와 교회학교, 찬양대 연습과 소그룹 모임, 거기에 식사와 설거지까지 서울교회 1층은 그야말로 빈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날씨는 더워지고 공기는 탁하여 성도님들께 죄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타인을 배려하고 더욱이 예배 질서를 잘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웨민홀은 예배로 구별된 공간입니다. 따라서 **웨민홀에서 일체의 음식과 음료 반입을 금지합니다.** 꼭 필요하신 분은 물은 소지하셔도 좋으나 될 수 있으면 물도 예배 전에 미리 마시고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점은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배웠던 바입니다. 지금 비록 시기가 혼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기본 질서를 저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곧 다가오는 무더위에 서로를 배려하고 예배 질서를 잘 지키므로 하나님께 영광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 예배드리기 더 좋은 환경을 위해



**차도훈 장로**  
(관리위원장)

웨민홀은 예배를 드리기에 매우 좁은 공간으로 더욱이 일찍 찾아 온 무더위로 별도의 냉방을 하지 않고는 예배를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오정수 장로님, 오윤걸 집사님 가정에서 대형 스탠드 냉난방기 2대를 기증하여 주셔서 지난 월, 화요일 이틀에 걸쳐 설치 작업을 마쳤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 앞을 가로 막고 있는 홍해를 말씀과 기도로 건너기 위한 2019 홍해작전을 시작하기 전,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좋은 우리 하나님과 홍해작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위하여 냉난방기를 기증해 주신 가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교회 온 성도님은 홍해작전에 적극 동참하여 서울교회 앞을 가로 막고 있는 거짓과 분열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 이기시고 개인과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도 힘써 기도하시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2019 홍해작전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승리의 승전 보고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홀의 개별 냉·난방을 위해 설치된 대형 냉난방기

### 등 정

- 금주의 식사 : 박동우 집사·백승경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드리며) 비빔밥 열무김치
- 홍해작전 기간 중 음료수 제공 : 이관규 은퇴장로·이순영 권사 가정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9 홍해작전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앞에 놓인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3.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어서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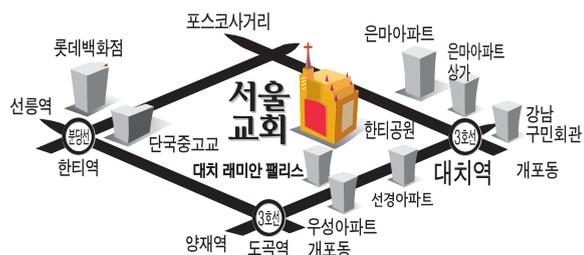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6월10일	월	욘 37:1-40:2		행 12-16	
6월11일	화	욘 40:3-42:17		행 17:1-21:26	
6월12일	수	시 1-7		행 21:27-28:31	
6월13일	목	시 8-14		롬 1-6	
6월14일	금	시 15-18		롬 7-11	
6월15일	토	시 19-25		롬 12-16, 고전 1-3	
6월16일	주일	시 26-31		고전 4-11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